



칼하인츠 에슬

*Karlheinz Essl*

“나는 토이 피아노로 작곡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둔다.  
하나는 토이 피아노는  
피아노가 아니다라는 점과  
토이 피아노는  
어린이용 장난감이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칼하인츠 에슬**은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이자 연주자이며 비엔나 음악 공연예술 대학에서 전자음향 작곡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전자음향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자신의 라이브 공연에서 활용하며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있다.

그는 2001년 장난감 피아노를 알게 되었으며 2005년도에 첫 토이 피아노 작품인 '칼림바(Kalimba)'를 작곡하였고 2022년도 현재까지 10곡 가량의 토이 피아노 작품을 쓰게 된다. 칼하인츠 에슬은 토이 피아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토이 피아노는 피아노와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소리, 다른 작동 원리, 다른 분류이다. 단순히 크기만 작은 피아노이거나 유아용 악기로 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토이 피아노를 진지한 악기로서 무대에 오른 역사가 20년이 채 안되

기 때문에 특정 전통이나 역사로 인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악기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많은 토이 피아노 작품 중 대표작은 2005년 4월에 작곡한 '칼림바'이다. 이 작품은 토이 피아노와 플레이백 음원을 위한 곡이며 작품의 의도는 악기 자체의 음향을 통해 토이 피아노의 제한된 음향 세계를 깨뜨리는 시도라 설명한다. 칼림바를 연주하기 위한 셋팅으로 토이 피아노 내부에 플레이백 음원을 재생하는 스피커를 미리 숨겨두는데 이는 악기의 소리와 재생 음원의 소리를 완벽하게 조화롭게 만든다. 또한 관객들은 공연 초반에 스피커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소리가 토이 피아노 자체로부터 들린다고 가정할 수 있다.